

민주 “윤, 토론하면 싸움만” 맹비난

토론 싫어 외교 몰라 망언 후보 완주는 가능할지 의문 민정실·2부속실 폐지 주장에 해경없엔 박근혜 돌아왔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TV 토론 회의론'과 관련 "윤 후보가 사실상 '토론 거부'를 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지난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토론에 대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용민 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논평에서 "윤 후보는 클린 선거의 대명사 TV 토론을 '몰타기 토론회'라고 역지를 부린다"며 "지금 깨끗한 정책 선거 하되 오염수로 몰타기 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자신"이라고 꼬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현안 진단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론을 '싸움밖에 나지 않는다'고 규정해버리는 윤 후보의 말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본인이 싸움으로 임했다고 모든 토론이 진흙탕이고 네거티브인 것은 아니다. 토론을 겁내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SNS에 "토론 같은 거 없어도 국민들이 선택해줄 거란 오만인가? 아니면 '1일 1망언'이 토론에서 극대화될까 겁나는 건가?"라고 썼다.

그는 "이렇게 가다가는 3회의 법정 토론도 핑계를 대고 거부할지 모르다"며 "토론 싫어, 외교 몰라, 망언만 잘하는 윤석열 후보. 대선 결과는 둘째치고 완주는 가능할지 정말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줘야 할 토론회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이재명 특검"만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모습은 아집오박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정래 의원도 "모르는 게 없는 후보와 싸워야 하는 아는 게 없는 후보 비애"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윤 후보의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두관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는 검찰 공화국 선언인가?'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윤 후보는 최근 없애겠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세월호 사고 뒤에 '해경을 없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나 싫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부인 김건희 씨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 부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없앤다더니,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고 한다"며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권을 세우겠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윤 후보는 외국에 영부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의 아내(the President's wife)를 the First Lady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총장 그만두고 (정치) 과외받은 8개월 동안 가르치지 않은 영어 과외 선생 잘못"이라고 비꼬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TK 찾은 윤석열, '박근혜 메시지' 수위 고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방문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지지율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텃밭 민심을 다잡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사면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을 찾는 일정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첫날 일정은 대어(對陂) 견제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이날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항을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안동으로 옮겨 경북 선거대책위를 띄웠다. 저녁에 대구로 이동해 하룻밤을 묵은 뒤 30일 오전엔 수성구에서 열리는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다. 현지 언론 간담회, 미래 신산업 '로봇' 관련 기업인 현대로보틱스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대구를 '4차 산업혁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TK 방문 일정과 관련해 윤 후보는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정 여론을 다독이면서도, 전국의 중도층 민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게 딜레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는 전날의 입장 표명을 재확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 후보의 TK 방문에 맞춰 '강성 친박'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시 기자 간담회, 윤 후보 일정이 예정된 안동 전통시장 방문,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행사장에서 윤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는 맞불 일정을 예고한 상태다. /연합뉴스

이재명, 영·호남 특보단장에 최인호·강기정

미디어·ICT 특위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호남 특보단장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영남 특보단장에 최인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강 특보단장과 최 특보단장은 대선일까지 '영호남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땀 흘릴 예정"이라면서 이날이 공시됐다. 공보단은 "과거 지역 특보단장들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했지만 두 특보단장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교차 활동함으로써 이 후보의 지역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 영호남 공동공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나라를 망칠 것 같아 공화국의 탄생을 막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 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단장은 "2022년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영호남이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도 30일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는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박성준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고상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1일 본회의의 소집... '대장동 특검' 합의 또 불발

출마연령 낮추는 공직선거법 미디어특위 연장안 처리키로

여야가 연말 본회의의 소집에 29일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12월 31일과 내년 1월 11일 개의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로 연장하는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르면 31일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그러나 대장동 의혹 수사 위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채 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불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는 데에

도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화했다며 법사위에서 김 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35건 정도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손실 보상법같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서 1월 11일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특검법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며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중심으로 (처리하겠다)"며 "남아있는 법안 중에서 쟁점이 있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좀 더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 민주당과 통합 29~30일 당원투표

열린민주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 대 통합에 대한 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30일 저녁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온라인투표에서 당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민주당의 투표가 끝난

뒤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권 통합' 추진에 나선 이후 양당은 대표단을 통해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6일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당 대 당 통합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광주선관위 상임위원 강순후, 사무처장 김영도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1월 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강순후(55) 관리관(1급)이, 신임 사무처장에 김영도(54) 부이사관(3급)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순후 상임위원은 제주자치도선관위 홍보과장·지도과장·관리과장·총무과장,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장, 충북선관위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신임 김영도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 선거과 사무관, 부산 연제구선관위 사무국장, 부산선관위 홍보과장·지도과장·관리과장 등을 거쳤다. /최권일 기자 cki@



상가매매(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0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합,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 ① 기초반, 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 실전(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직업가능,수익가능)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p> <p>광주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감정가 8억3천 -> 3억7천 (12/21) 남구 월산동(주택)▶감정가 3억5천 -> 2억 (12/21) 서구 쌍촌동(아파트)▶감정가 2억5천 -> 1억1천 (12/21) 북구 두암동(상가건물)▶감정가 4억2천 -> 2억9천 (12/29)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2억7천 (12/29) 서구 농성동(근린주택)▶감정가 8억1천 -> 4억5천 (1/12) 동구 계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 -> 4억2천 (1/12)</p> <p>전남 목포시 상동(집중지)▶ 감정가19억 -> 8억5천 (12/1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7천6백 (12/16) 무안군 일로읍(농지)▶ 감정가 3억8천 -> 1억3천 (12/20) 장성군 황룡면(주택)▶ 감정가 4억1천 -> 2억9천 (1/5)</p> <p>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억7천 -> 6천5백(12/27) 경남 창원시(근린상가)▶감정가 40억 -> 13억 (1/13)</p> <p>062-382-5500</p>